

## <자기소개서 쓰기> 요약

송민경 2020032306 (2시간 15분)

### 1.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의 의미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글'이다. 더 중요한 점은 특정한 대상을 전제로 하는 설득하는 글이라는 점이다. 주관기관은 지원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작성자도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작성자는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특정한 대상이 요구하는 인물을 자기 탐색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설득적 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능력보다 역량을 더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부분은 학벌, 학점 등 수치화 가능한 '스펙'이 입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펙만으로는 지원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채용을 위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스펙은 '단지 과거에 내가 이룬 것의 종합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도모하는 모든 기업은 자기소개서에 적은 미래의 역량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과거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다른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3. 좋은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 1)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각종 주관기관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 지원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리더를 찾는 것이다. 한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작성자의 목적은 합격이다. 따라서 작성자는 주관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구하는 상을 찾고 이에 맞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증명해야 한다.

#### 2) 자기소개서는 자기'증명서'다

자기소개서의 모든 문항은 합격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각 문항의 내용이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하나의 상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때 자기소개서는 주장하는 글이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삶을 탐색함으로써 자신이 그 상에 적합한 사람임을 사례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의 이러한 특성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 낸다. 즉 자신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역량을 가진 인물로 변화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담는다면 상을 명확히 그림과 동시에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다.

### 4. 좋은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라

#### 1) 형식의 기본을 이해해야 한다

##### ① 시간의 여유를 두고 성의 있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성의가 없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성실성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이는

곧 안좋은 결과로 연결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란을 남기지 않고 제한된 글자 수에 맞게 적절한 양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써야 한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및 오타자는 금물이다. 또 공적인 문서이므로 표준어로 작성하고 한자나 영어의 과도한 사용, 이모티콘 사용을 금해야 한다. 특히 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일목요연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써야 한다

각종 주관 프로그램 담당자는 많은 지원자의 자소서를 짧은 시간 안에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한 편을 검토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을 할애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일목요연한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장이 간결해야 한다. 즉 같은 단어나 문장의 반복, 장황한 열거, 연결어미를 통한 문장 늘이기 등은 금해야 한다. 또 핵심내용 파악이 쉽게 두괄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소제목을 통해 ‘각인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참신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평범한 표현을 사용한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제목 등을 이용해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의외의 마무리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 ④ ‘~인지, ~하다 보니, ~게 되다, ~같습니다’ 등의 표현은 금물이다

‘때문인지 ~ 했습니다.’, ‘하게 되었고’, ‘~ 같습니다.’ 등의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금물이다.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이루었다는 능동성을 전해주지 못할뿐더러 자신감과 확신이 결여된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2) 내용의 기본도 이해해야 한다

## ① 문항마다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술할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지원한 기관의 인재상이나 가치관 또는 미래 비전의 측면에서 기술할지, 지원한 직무에 집중해 기술할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한 후 그에 맞는 내용으로 기술해야 한다.

## ②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역량은 어떤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이다. 역량이 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각종 수상 이력 등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미래의 성취 가능성까지 제시한다면 더욱 좋다.

## ③ 긍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성장 과정이나 학창시절, 성격의 장단점 등을 적을 때 밝은 면만을 적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주관기관은 응시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는 어두운 면을 극복했음을 보여주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긍정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마음이 유쾌할 때 쓰는 것이 좋다.

### 3) 문항이 요구하는 ‘바로 그’를 ‘나’로 만들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문항은 그것을 요구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개의 자기소개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항들이 있다. ‘성장 과정 / 성격의 장단점 / 학창 시절 및 경력 / 지원동기 / 입사 후 포부’가 이에 해당한다.

#### ① 성장 과정: 배움을 통한 ‘바로 그로서의 나’의 형성 드라마를 써야 한다

성장 과정은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대상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긍정적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는 상을 그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스승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이기에 이 스승의 존재는 지금의 나를 증명해준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주장만 해서는 안 되며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꼭 있어야 한다. 또 스승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② 성격의 장단점: 업무와 관련된 장점과 단점의 극복 드라마를 써야 한다

성격의 장단점은 자신의 성격 중 장점을 골라 쓰되, 지원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을 써야 한다. 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에 단점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때 장단점을 추상적으로 서술하면 안 되며 간접적 제시와 에피소드를 활용하면 좋다. 한편, 단점은 최대한 장점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 장점이 돋보이고, 단점이 장점의 부산물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 ③ 학창 시절 및 경력: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이 문항은 여러 경험 중 장점이거나 강점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해 기재하면 된다. 지원하는 분야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관 기관은 이를 통해 지원자의 능력과 함께 조직 적응력 등을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것만을 골라 구체적이고 특별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문항을 통해 지원동기의 필연성 및 입사 후 포부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항들과 관련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원동기: 오직 필연성에만 집중해 써야 한다

지원동기 문항에서는 자신의 삶 속 인과관계를 통해 필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동기가 확실한 사람, 이곳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경험을 통해 갖게 된 꿈의 성취나 전공의 실현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현재보다는 미래와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좋다. 지원한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연구한 뒤 자신의 꿈의 성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입사 후 포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입사 후 포부 항목은 지원자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첫째, 필연성 확보를 위해 지원동기, 즉 꿈의 성취나 전공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기술해야 한다. 둘째,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셋째, 실제 업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일이나 기업의 비전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일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지원자의 역량을 통해 믿음을 주어야 한다.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포부를 제시하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자신의 특기나 장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